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2.1.(목) 조간 2022.11.30.(수) 11:00	배포 일시	2022. 11. 30.(수) 06:00
담당 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대구와 굴을, ②어촌안심여행지로 경남 거제 산달도 마을과 경남 남해 문항마을을, ③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④등대로 강원 속초시 대포항 동방파제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물고기 바구니와 조새를,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죽도(대섬)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대구, 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와 굴을 선정했다.

대구(大巨)는 대구목 대구과의 바닷물고기로 머리와 입이 크다고 해서 대구라고 불리어왔다. 얼핏 보기에는 명태와 비슷해보이지만, 명태보다 머리와 입이 크고 입 주위에 수염이 나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겨울철 살이 오른 대구는 살이 희고 비린내가 적어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다. 또한, 류신과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추운 겨울 건강식으로 안성맞춤이다. 두툽한 살에 갇은 야채를 넣고 끓인 탕의

시원한 국물 맛과 큰 머리에 붙은 쫄득한 살로 만든 대구뽕찜의 매콤한 맛은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을 녹이고 입맛을 돋운다.

날이 추워질수록 맛이 좋아지는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여 ‘천연 영양제’로 불린다. 생굴 그대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양념에 갓 버무린 김장김치와 곁들여 먹어도 좋지만, 매생이를 넣어 국으로 끓여 먹으면 겨울철 보양식이 따로 없다. 또한, 전분을 입힌 굴을 버터를 넣어 구운 후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먹는 굴 덮밥도 겨울철에 맛볼 수 있는 별미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맛, 영양, 건강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철 수산물인 대구와 굴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남 거제 산달도마을과 경남 남해 문항마을



산달도마을 전경



문항마을 전경

해양수산부는 2022년 마지막 어촌안심여행지로 숙박부문 일등어촌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마을과 체험부문 일등어촌 경상남도 남해군 문항마을, 두 곳을 선정하였다.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결정에서 숙박부문 1등급을 받은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산달분교 펜션은 숙박시설, 바베큐장, 카페 등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마을을 찾은 어촌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펜션에서 제공되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건강밥상은 일상생활에서 지친 도시인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준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마을 뒷산 옆으로 만들어진 둘레길을 걷다 보면 다도해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산달도 마을의 알록달록한 지붕과 구석구석 그려진 벽화가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산책 후에는 고동과 해삼을 줍는 바다체험, 고동과 해삼을 줍는 바다체험, 감성돔 등을 잡을 수 있는 낚시체험을 하며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문항 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결정에서 체험부문 우수마을로 선정될 정도로 즐길 거리가 가득한 마을이다. 썰물로 갯벌에 물이 빠지면 돌담장에 갇혀 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전통어법인 석방렴도 구경할 수 있고, 밀물 때는 배를 타고 가야하는 상장도와 하장도에도 걸어서 갈 수 있다. 신선한 수산물은 덩이다. 직접 캔 바지락과 석화, 가리비는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는 별미가 된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편안한 쉴 곳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검은머리갈매기



해양수산부는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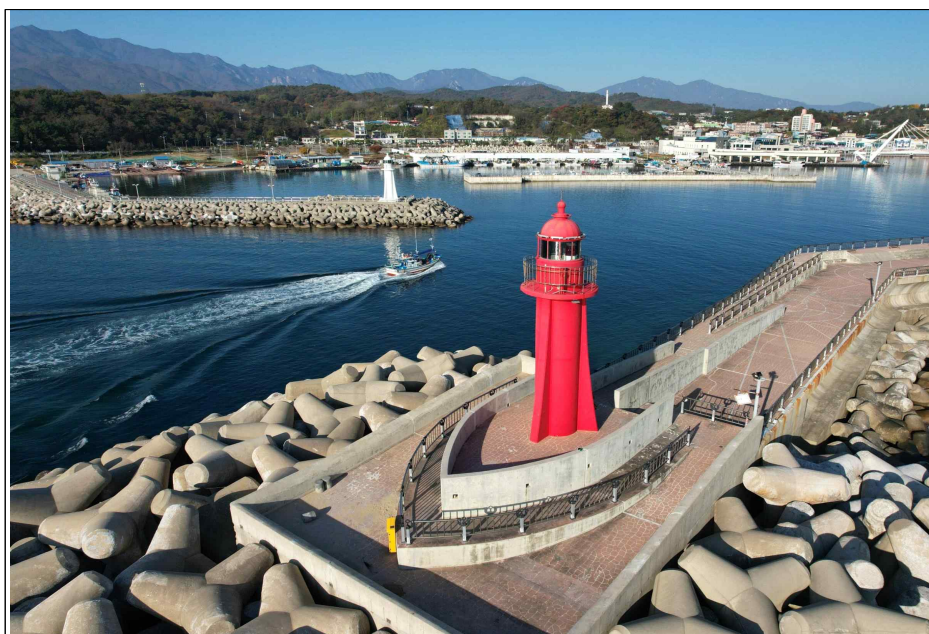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 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동방파제 등대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등대로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대포항 동방과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2011년 10월 처음으로 불을 밝힌 이래 매일 밤 5초마다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안과 대포항을 오가는 선박에게 안전한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대포항 동방과제 등대’는 주변의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붉은 등탑으로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구경하러 왔다가 붉은 등탑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며, 바다에 비치는 달빛과 어우러진 항구 곳곳의 조명이 선사하는 야경에 빠지기도 한다.

인근에 설악산과 척산온천, 청초호, 영랑호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방문하기 안성맞춤이다. 먹거리도 풍부하다. 대포항은 설악산 기슭 깨끗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해산물들이 모이는 곳이며, 인근의 튀김골목에서는 오징어, 새우, 대게 등으로 만든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을 맛볼 수 있고, 수산시장에서는 대게, 랍스터, 활어회, 숙회 등을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술상항 남방과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조새와 물고기 바구니

해양수산부는 1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우리 어민들의 전통 어업도구인 조새와 물고기 바구니를 선정하였다.

조새는 바닷가 돌이나 바위 틈에 붙어 자라는 굴을 채취하거나 굴 껍데기를 깔 때 사용하는 전통어구이다. 지역에 따라 ‘쥬’, ‘쫂시개’, ‘갈고랑’ 등 다양하게

불리우며 형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소장한 조새는 1960~1980년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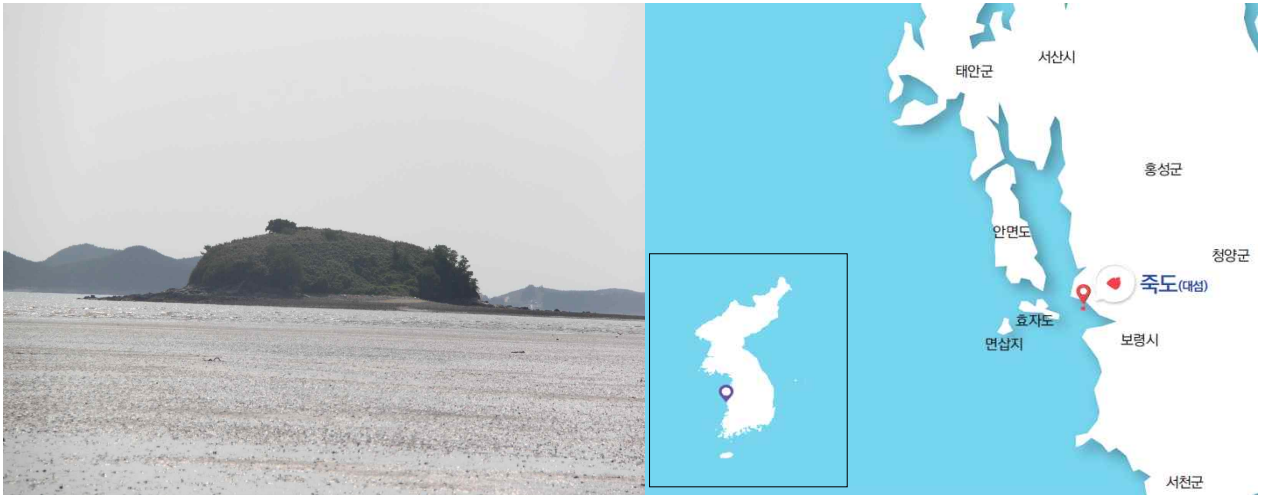
근현대 | 35.5×20.5×31.5, 30.3×20.8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당시 이 조새와 물고기 바구니의 주인은 조새로 굴을 캔 후 물고기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과 나누어 먹거나 시장에 내어 팔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자료는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어업도구를 비롯해 어시장 노동자들의 생업자료, 선원들의 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보물을 품은 무인도, 죽도(대섬)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무인도서로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죽도(竹島, 대섬)를 선정하였다.

죽도는 고도 30m, 길이 약 100m이며, 면적은 11,901m²인 섬으로 대나무의 종류 중 이대(*Pseudosasa japonica*)종이 섬을 뿔뿔하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섬 둘레는 울퉁불퉁한 화강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을 겪으며 구멍이 뚫리는 타포니 현상도 보인다.

죽도는 해안에서 섬까지 직선거리가 약 850m로 썰물일 때에는 걸어서도 가볼 수 있는 무인도서이다. 주변의 갯벌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 모래와 갯벌, 바스러진 조개껍데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천혜의 바지락 밭이기도 하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주변 어민들의 소득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봄과 가을엔 도요새, 겨울에는 기러기와 가창오리 같은 철새의 먹잇감 있어 해양 생태계가 잘 조성된 곳이다. 최근에는 안면도를 종단하는 77번 국도가 대천항까지 해저터널로 이어져 접근성이 편리해졌다.

또한, 죽도 남서쪽 바다에서는 상감청자와 백자대접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어 정부는 해당 해역(반경 1.5km, 넓이 7.07km²)을 1987년 9월 사적(史蹟) 제321호 '죽도 앞바다 고려청자 매장 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죽도(대섬)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실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12월
이달의 수산물

대구

Pacific cod



대구는 옛부터 ‘대구어(大口魚)’, 이름 그대로 입이 큰 생선으로 불리왔다. 대구는 어린이의 성장과 어르신들의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고, 겨울철 추운날씨로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과 피로감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무, 대파 등을 넣고 끓인 시원한 탕이나 찜으로 주로 먹는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Calorie)

86 kcal

수분

(Moisture)

78.6 g

지방

(Fat)

0.3 g

단백질

(Protein)

19.5 g

회분

(Ash)

1.3 g

칼슘

(Calcium)

35 mg

인

(Phosphorus)

193 mg

철

(Iron)

0.4 mg

니아신

(Niacin)

2.4 mg

아르기닌

(Arginine)

1,293 mg

류신

(Leucine)

1,381 mg

라이신

(Lysine)

1,421 mg

12월
이달의 수산물

굴

Oyster



굴은 무기질, 단백질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바다의 우유’, ‘천연 영양제’로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굴은 12월인 지금이 제철인데 생으로 먹거나, 매생이를 넣고 국을 끓여먹으면 좋다. 또한 대파와 굴을 번갈아 쪄고 양념장을 바른 후 구워먹는 꼬치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Calorie)

73 kcal

수분

(Moisture)

83.5 g

지방

(Fat)

2.6 g

단백질

(Protein)

9.2 g

회분

(Ash)

2.4 g

칼슘

(Calcium)

75 mg

인

(Phosphorus)

115 mg

철

(Iron)

1.3 mg

니아신

(Niacin)

4.2 mg

셀레늄

(Selenium)

44 ug

타우린

(Taurine)

1,006 mg

아연

(Zinc)

13.2 mg

12월

이달의 수산물

겨울철 최고 보양식
대구, 굴
더 알고 싶어?



대구

매일 것 하나 없는
겨울 생산과 역병사, 대구
커다란 파리의 실점운 불행으로
남은 삶은 시원한 향으로
마가마와 내장은 맛있게
즐거게 좋은 겨울 생선

굴

바다의 무유라 불리는
겨울철 최고 보양식, 굴!
무기질과 비타민, 아연이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건강 수산물, 굴!



魚食 어식백서
100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여



해양수산부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2022년 12월



산달분교를 리모델링한 숙소에서 하룻밤 산달도어촌체험휴양마을(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마을에는 폐교를 개조해 운영하는 산달분교 펜션이 있는데 22년 등급결정에서 숙박부문 1등급을 받아 우수마을로 선정될 만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계절에 맞추어 현지 건강밥상을 맛볼 수 있는 1박 3식이 있다. 고동과 해삼을 잡는 바다 체험과 감성돔 등을 잡을 수 있는 낚시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 바다체험(고동잡기, 해삼잡기), 굴까기체험, 낚시체험, 유자따기체험
먹거리 : 굴, 가리비, 1박 3식(어촌건강밥상)
주변 관광지 : 거제식물원, 한산도 제승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평면 산달리 11 ☎ 010-9333-8096 🌐 <http://산달도어촌체험마을.kr>



마을 앞 갯벌,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문항어촌체험휴양마을(경상남도 남해군)

문항마을은 체험 거리가 가득한 마을로 22년 등급결정에서 체험부문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다. 조개잡이체험뿐만 아니라 바다가 길라지는 모세현상 관람, 전통 고가잡이 방식인 석방렴 관람을 즐길 수 있다. 마을에서는 신선한 수산물을 가득 넣은 해물라면을 먹을 수 있다. 여행을 즐긴 후 어촌에 공동숙박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

체험 : 조개잡이체험, 석방렴 관람, 모세현상 관람
먹거리 : 석화, 생굴, 가리비
주변 관광지 : 남해대교, 총열사, 암모리학교

📍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강진로206번길 54-9 ☎ 055-963-4787 🌐 <http://문항어촌체험마을.kr>

2022. 12

www.koem.go.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나라

해양생태계 최상위 지위의 귀족 바닷새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는 갈매기과(Laridae) 갈매기속(*Larus*)의 조류이다. 해양생태계를 삼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조류(새)로 여름에는 머리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겨울에는 흰색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과거 대규모 갯벌 매립 및 개발공사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에 검은머리갈매기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검은머리갈매기는 해안 갯벌과 염습지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새)로 주로 갯벌에서 사는 갯지렁이와 염새우 등을 먹고 산다. 1998년 서화호에서 최초로 번식이 확인된 이후 영종도, 송도, 새만금 지역 등 꾸준히 번식지가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0월경에 찾아와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3월경 번식을 위해 다시 떠나는 철새로, 겨울에 서해안 및 남해안 갯벌을 방문하면 작은 무리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수출·제조·유통 금지 / 무단 복제·배포·판매 금지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대포항동방파제등대

동해안을 대표하는 국가 어항인 대포항은 개항 100년을 맞은 역사적인 항구이며, 종합 관광 어항으로서 설악산 등과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대포항 인근에서는 주로 넙치, 가자미 등의 생선이 잡히며, 항구 주변에는 다양한 건어를 가게와 횃집, 관광수산시장이 있어 동해안에서 갖 잡아 올린 싱싱한 활어뿐만 아니라 대게, 람스터, 속취 등을 맛볼 수 있다. 또한, 튀김골목에서는 속초의 명물인 오징어, 새우, 대게 등으로 만든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을 즐길 수 있다.

대포항은 대형 어선이 드나드는 속초항과 달리 소형 어선이 주로 이용하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대포항에선 총 3개의 등대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파제 끝에 위치한 빨간등대이다. 이등대는 '대포항동방파제등대'로 관광객들에게는 '대포항 빨간등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5초에 한 번, 붉은색 불빛을 반짝이며, 대포항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안전한 뱃길 안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대포항은 다양한 즐길 거리 많은데, 보행육교에서는 탁 트인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뛰어난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여객선과 유람선, 어선 등의 선박이 항해하는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이다. 대포항 전망대에 올라서면 뒤로는 웅장한 설악산과 울신바위, 앞으로는 대포항을 마주할 수 있어 일출과 일몰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자연환경 덕분에 새해 해맞이 명소가 손꼽히기도 한다. 북쪽으로는 65년 만에 개방한 풍광이 아름다운 외옹치 바다항기로를 산책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척산온천, 청초호, 영랑호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으므로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이 지역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주변 관광지

- 대포항 전망대
- 해파랑길 45코스
- 외옹치항
- 바다항기로
- 속초관광수산시장
- 설악산국립공원
- 아바이마을
- 속초해수욕장



주변 먹거리 굼치국(물곰탕)

물곰탕, 물메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곰치의 산란기는 12월~3월이고 이 시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연안으로 이동한다. 옛날 뱃사람들이 곰치를 잡으면 다시 바닷물에 '털뽕' 던져 물곰뽕이란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천대받았지만, 요즘은 뛰어난 맛 때문에 큰 대접을 받는다. 담백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연한 육질이 특징인 곰치를 재료로 만든 곰치국은 강원도 향토 음식이다. 곰치국은 버리지 않고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신김치, 고춧가루를 푼 곰치국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좋아 해장국으로 인기가 높다.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2. 1. 1. ~ 12. 31.

①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②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2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2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마다 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2019~2021 시리즈도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12월

물고기 바구니와 조새



근현대 | 35.5×20.5×31.5, 30.3×20.8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1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우리 어민들의 전통 어업도구인 물고기 바구니와 조새를 선정했다.

대나무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물고기 바구니는 근대까지 사용된 전통적인 어구로 물고기를 잡아 임시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물고기 바구니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대바구니가 겹쳐진 형태로 아래쪽 바구니는 물고기를 담을 수 있도록 깊게 만들어졌고, 위쪽 바구니는 뚜껑 겸 조개·굴 등을 채취하여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천으로 된 끈이 달려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집한 조새들은 1960~1980년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유물이다. 조새는 바닷가 돌이나 바위에 붙어 있어 쇠송곳으로 채취하거나 굴 쪼개기를 할 때 사용하는 어구이다. 정약전(丁若鉉, 1758~1816)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 "굴(硃蛸)은 바위에 붙어 있어 쇠송곳으로 채취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쇠송곳 형태의 채취 도구가 조새와 유사한 도구로 보인다. 조새는 지역에 따라 꿰·쪼시개·갈고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형태도 조금씩 다르다. 조새의 머리 쪽에 달린 뾰족한 쇠날은 굴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고, 손잡이 아랫부분에 달린 고챙이(총질개)는 굴의 알맹이를 꺼는 데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물고기 바구니와 조새는 우리나라 어업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전시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각종 어업도구를 비롯해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업자료 등 사라져 가는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다시 도약의 대한민국
함께 잘라 주시길 바래요

해양수산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하나

영포서 시작,
당신의 삶이 보고

무인도서 2022년 12월
이달의 무인도서

보물을 품은 무인도

주도 (대사섬)

고도 30m 길이 약 100m
면적 11,904㎡

서해 제1호
죽도 앞바다
고려해상왕릉 유적

가장 길고
넓은 해안선 길이
물놀이 장소가 많은 섬

2022년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죽도의 특이성(特色)은 충청남도 보령시 두곡면 송화리 산하에 위치한 무인도서이다.

보령 시내에서 대한방조제를 따라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큰포리 해안 도로에 닿는다. 이곳의 전망대에 오르면 눈앞에 죽도가 보인다. 죽도는 고도 30m, 길이 약 100m이며, 면적은 11,904㎡인 섬이다. 육지에서 섬까지 직선 거리가 약 850m로 일출일몰 때에는 걸어서도 가볼 수 있는 무인도서이다.

죽도는 바다 가운데 위치한 해안 경관에 포인트를 주는 섬이다. 일출이론 바닷바람의 비옥물처럼, 바닷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면 일그러진 얹어놓은 술뚜껑처럼 생긴다. 죽도는 이대(Pseudotsuga japonica)라는 대나무의 일종이 섬을 빼먹히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섬 이름의 유래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곳은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며 화살, 낚시대, 담뱃대,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죽도 둘레는 울퉁불퉁한 화강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겪으며 구멍이 뚫리는 타포니 현상도 보인다.

죽도는 주변의 갯벌은 일몰과 일출로 인해 오징어와 갯벌, 바스라찬 조개 집합체가 적실해 섬에 있는 현재의 비치와 밭이기도 하다. 이런 풍부한 해안 환경 덕분에 봄과 가을엔 도요새, 겨울에는 갈매기와 기암괴석 같은 절세도 나타난다.

죽도가 보물섬인 까닭은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 원산도와 죽도 사이에서 상감형자와 백자 대접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유물이 나온 바다를 지키기 위해 1987년 9월, 죽도 남서쪽 반경 1.5km(넓이 7.07ha)를 사적(史蹟) 제321호 '죽도 앞바다 고려형자 매장 해역'으로 지정했다.

죽도(대섬)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http://allmo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 www.mot.go.kr / map.mot.go.kr/korea.html
www.km.or.kr / www.mot.go.kr/photos

충청남도 보령시